주요 내용

▌최근 외환시장의 불안 조짐 ▐

원/달러 환율 동향

- 원/달러 환율은 정부의 '외환 수급조절 대책',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,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이탈 등으로 2개월 여만에 1,200원 선을 넘어섬. 이에 따라 원/100엔 환율도 엔화 강세와 더불어 1,070원 이상까지 상승함

외환시장의 불안 조짐

- **(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이탈)**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입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지속적인 안정 추세를 보이던 원/달러 환율의 일일 변동폭이 확대됨
- **(외환 거래 규모 축소)** 외환거래 자유화 실시 이후 20억 달러 이상까지 증가한 외환 거래 규모가 대우사태 이후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감 확산으로 최근 16억 달러 대까지 감소함

향후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과 대응 과제

- **(향후 외환시장 불안 요인)** 대우 구조조정 부진, 미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어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음
- **(대응 과제)**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충해 나가고 외환 거래 규모 확대, 국제금융 센터의 효율적 활용 등 적극적인 대비책이 요구됨. 특히 단기적인 금융위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를 900억 달러 이상까지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

현안 분석

최근 외환시장의 불안 조짐

정 희 식

원/달러 환율 동향

- **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던 원/달러 환율은 7월말 2개월여 만에 1,200원대를 돌파하였음**
  - 환율 상승의 원인은 정부의 '외환수급 조절 대책',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,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설 등임
  - 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逆송금용 달러 수요와 은행 및 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등 역외거래자들의 투기적 달러 매수세도 환율 상승을 부추김
  -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지표인 원/100엔 환율도 엔화 강세와 더불어 3개월만에 1,000원 선을 회복한 후, 8월 20일 현재 1,071원까지 상승함

외환시장의 불안 조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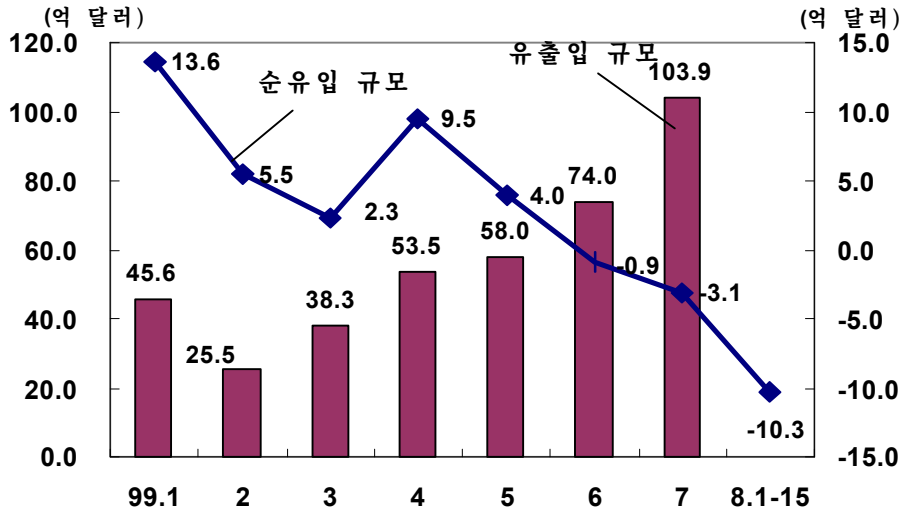
- **98년 연말이후 외환시장은 안정화 추세를 나타냈지만, 최근 대우 사태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입이 급증하고 외환거래 규모가 축소되는 등 여러 가지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음**

- **(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입 규모 급증) 99년 7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입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까지 증가하여 환율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**
  - 특히 99년 7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순유입세를 기록하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8월 들어 급격히 유출되면서 순유출로 전환된 것이 불안감을 높이고 있음
  - 대우 사태와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네셔널(MSCI)의 한국 투자 비중 축소 발표로 한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8월 1일부터 15일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외환시장을 통해 빠져나감
  - 이러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입 규모 증가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

장에서도 큰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여 99년 들어서 0.5%(5원) 이하까지 축소된 일일 평균 환율 변동폭이 최근 0.7%(7~8원)까지 확대되는 등 환율 변동성(Volatility)이 커짐

· 여기에 단기적 환차익을 노린 투기적 달러 매매 세력까지 등장하는 등 환율 변동폭 확대에 따른 위험이 커지면서 달러 매도 및 매입을 위한 은행 고시 환율의 격차도 50원 정도까지 확대됨

< 99년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추이 >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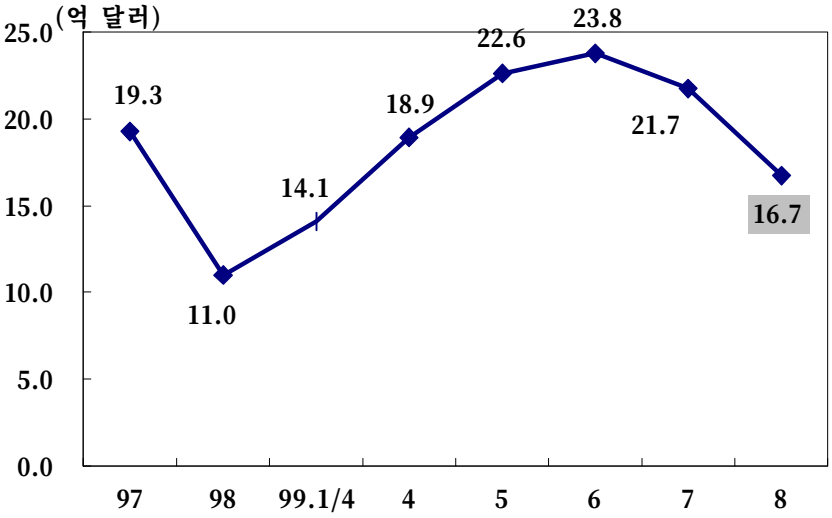
- **(외환 거래 규모 축소) 99년 4월 1일 외환거래 자유화 실시 이후 일일평균 20억 달러 이상까지 증가한 외환거래 규모가 최근 16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함**

· 외환위기로 98년 중 일일평균 외환 거래 규모가 10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지만, 환율 안정 등으로 외환 거래 심리가 회복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해 99년 6월중 외환 거래 규모는 23.8억 달러까지 늘어남

· 그러나 대우 사태 이후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외환 거래 규모가 7월 21.7억 달러, 8월(8.1~8.16) 16.7억 달러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

· 이러한 외환 거래 규모 축소는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키고, 대규모 자본이 유출입될 경우 환율이 급등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

< 일일평균 외환거래 규모 추이 >



주 : 8월은 8월1일부터 16일까지 평균치임
자료: 한국은행

향후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과 대응 과제

- **(외환시장의 불안 요인) 대우 사태 해결 부진, 미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음**
  - 현재까지는 대우그룹의 해외 채권단이 운영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는 등 구조조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산 매각, 해외 부채 처리 협상 등 어려운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임
  - 만약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부진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금융 위기 발생까지도 우려됨
  - 미국의 금리 인상도 외국인 자본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  - 대우 사태 해결이 부진할 경우 현재의 유출 속도를 고려할 때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1개월 이내에 25~30억 달러정도가 추가 유출될 것으로 추정되며, 대우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 최소 100억 달러 이상까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음
  - 하반기중 외환시장에서 35~40억 달러 정도의 달러 공급 우위가 예상되고 있는데,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경우 환율 급등은 불가피할 것임

- **(대응 과제)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국제 금융시장의 위험에 적극 대처하면서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들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함**
  - **(외환보유고의 확충)** 대내외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단기적인 금융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
  - 이를 위한 적정 외환보유고는 3개월치 수입 금액, 단기 외채 총액, 주식 및 단기 채권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 등을 합산한 900억 달러 정도임
  - 특히 99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외국인들이 약 300억 달러(36조 원) 정도의 주식 평가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, 이는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으로 판단됨
  - **(외환 거래 규모 확대)** 외환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해 외환 거래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성을 축소시켜 나가야 함
  -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를 통해 외환 시장의 거래자가 늘어나면 환율의 변화 방향에 대한 서로 다른 이견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가격 변동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임
  - 무엇보다도 현재 초단기 거래에만 집중되어 있는 선물시장을 활성화시켜 기업들이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
  - **(국제 금융센터의 효율적 활용)** 현재 외환 및 국제 금융시장 조기 감시 체제중의 하나로 활동중인 국제금융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
  - 즉 국제 투자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국내 금융 기관 및 기업에게 국제 금융시장 정보를 알려주고, 환위험 관리 기법 등을 교육시키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케 하는 방안이 요구됨

(hsjoung@hri.co.kr ☎ 724-4042)